

월요논단



남 동 우
제주대학교 교수·예비역 해군 준장

대한민국은 '대륙국가'인가? '해양국가'인가?

작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국방·안보 관련 해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 복귀를 위한 '오아시스 작전',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 등이 떠오르는데, 그 중 해군의 경항모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해군의 경항모는 수직이착륙기와 헬기 운용이 가능한 3만급으로 2033년까지 건조해 제7기동전단(제주기지)에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진 소동이 한뼘했다. 작년 11월 16일 국회 국방위에서 경항모 예산이 72억에서 5억으로 대폭 삭감돼 사업 자체가 좌초위기에 처했다가,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72억 원이 반영되며 기사회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소동은 경항모 사업과 관련해 찬반 여론이 거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대 진영은 건조 비용 등 가성비와 한반도와 같이 좁은 해역에서의 효율성, 함재기로서 F-35B의 유용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찬성 진영은 반대 의견이 부적절하며, 전·평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힐 전략자산으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찬반 여론은 어느 한쪽이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랜 시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 진영의 강한 주장으로 보서는 어떤

논리를 제시하더라도 상대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 이는 객관적인 논리적 사고의 결과라기보다 대륙국가의 '대륙적 사고'나 해양국가의 '해양적 사고'와 같이 보다 근원적인 차이에서 형성된 의견 대립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보편적으로 '대륙적 사고'는 주 위협이 지상에 있고 해군력은 주변 해역만 잘 방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해양적 사고'는 주 위협의 방향이 해양이라고 생각하며 주변 해역 방어는 물론이고 먼 바다에서부터 상대를 견제하거나 필요시 위협의 근원을 파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차이는 해양에서 국가 핵심이익의 범주에 대한 견해차이다. '해양적 사고'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해외에서 경제 활동 범위 및 정도가 확대 될수록 해양 핵심이익의

범주는 계속 확장된다는 것이다. 우리 해군의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해양안보작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이자 경항모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대륙국가인가? 해양국가인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대륙적 사고'로 접근해야 하는가? '해양적 사고'로 접근해야 하는가? 지도를 보면 답이 나온다. 동·서·남해 3면이 바다이며 북쪽으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대륙으로 막혀 있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해양국가이다. 경항모 문제는 '해양적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정답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정책 결정자나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해양국가임을 자각하고 '해양적 사고'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길 기대한다.

사설

빨리 배달하려 무법 일삼다간 큰일난다

제주도내 이륜차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위험한 질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운행하는 이륜차가 여전하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배달경쟁으로 이같은 불법행위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한햇 동안 도내에서 적발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5000건이 넘는다. 이 때문에 이륜차의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인명피해도 더욱 우려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은 총 5961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2219건)에 비해 무려 168.6%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안전 모 미착용이 2338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 1145건(19.2%), 보도통행 791건(13.2%), 교차로 통행 위반 435건(7.2%) 순이다. 지난해 발생

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445건으로 전년(327건)보다 36% 이상 증가했다. 교통사고 사망자(8명)는 전년(12명)에 비해 줄었지만 부상자는 538명으로 전년(404명)보다 33.2% 늘었다. 도내 이륜차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 그동안 강도 높은 단속과 홍보에도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아서다. 이륜차의 무법행위가 얼마나 판치면 싸이카순찰팀과 유관기관이 합동단속팀까지 꾸려서 단속을 펼치겠는가. 최대한 빨리 배달해야 하는 종사자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무법행위를 일삼다가 본인은 물론 영동 모 미착용이 2338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 1145건(19.2%), 보도통행 791건(13.2%), 교차로 통행 위반 435건(7.2%) 순이다. 지난해 발생

열린마당

편리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송 기 응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제주도는 농업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은 농업보조금 개별공고로 인한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1월 중에 농업보조사업 통합 홍보 및 신청기간 등이 공고되면 농업인이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1월 19일까지이고, 친환경농업·감귤·밭작물 분야 및 친서민 농정사업 등 26개 분야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또는 영농조합법인은 신청 기간 내에 주

소지 또는 사업대상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이며 사업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어, 신청 시에는 해당 도나 시, 읍·면·동 주민센터의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해 신청하면 더욱 편리하다. 신청한 사업은 사업의 적합성, 보조사업 수행능력 등에 대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 보조사업 대상자로 확정하게 되고, 사업착공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는 각 읍·면·동 및 리사무소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사업지침서를 배치하는 등 보다 세심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해, 다양한 농업지원과 농가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농가 소득을 극대화하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으로 성장해 나가기 기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도 상반기 정기인사 변수는?

부이사관 교육대상자 선정 예측 비대면 환경운동 동참해달라
○...12일 단행하는 제주도 상반기 정기인사는 부이사관 교육대상자 선정이 국장급 자리 이동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 현재 부이사관 교육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3명 가운데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서기관 당시 교육을 이수했다는 명목으로 교육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고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은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정상화를 위해 교육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한 공직자는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승진 소요연한 3년을 다 채우지 않은 사람도 승진을 했었고 서기관 승진후 교육을 갔다온 사람이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한후 다시 교육을 가는 사례도 예전에도 있었다"며 "부이사관 교육대상자 선정이 국장급 자리 이동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 고대모기자

비대면 환경운동 동참해달라
○...제주시가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 환경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비대면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환경을 살리는 아름다운 달리기 플로깅 참여를 적극 전개한다는 방침. 시는 이에 따라 12월 말까지 비대면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일상 생활에서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플로깅 체험 및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체험 신청 접수기간 운영 계획과 함께 홍보 등을 강화.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해 배달 음식 소비가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에따른 환경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폐기물 줄이기 운동 확산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 이윤형기자.

다시 월동채소 파동, 애꿎은 농심 '어쩌나'

월동채소 수급 불안이 심하다. 출하기를 맞은 월동채소들이 가격이 큰 폭 하락에다 반전 기미도 안보인다. 농민들은 원가 커진 생산비 부담에 추가 하락을 못 막으면 농가 파탄에 이른 다며 전전긍긍할 정도다. 월동무와 당근, 양배추 등 제주 산 월동채소는 최근 코로나 19로 소비위축, 생산량 증가 등 영향에 평년대비 14~54%까지 떨어졌다. 양배추는 다음달 다 른 지방산까지 출하되면 추가 가격하락까지 우려된다. 올해 월동채소 수급불안은 예고된 수준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사회 전반 소비위축을 불러온 반면 제주 산 채소류는 생산량 증가를 불러온 현실에서다. 생산량이 평년보다 월동무 9.6%, 당근 15.7%, 양배추 9% 가량 늘 것으로 이미 예측됐다.

농심이 '절망'하고 있다. 월동채소 수급 불안이 해결되기는 커녕 사실상 매년 반복되는게 제주 농정의 '원주소'여서다. 도와 농협이 월동채소 가격하락, 과잉공급 등에 선제 대응보다 사후 대응 중심의 농정을 펼쳐 '해법'엔 한계를 보였고, 사태를 반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농정이 선제대응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올해도 소비확대, 수출, 가격차 보전 등 사후 대응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선제 대응책으로 월동채소 휴경시 지원, 자조금단체 지원 등이 있지만 아직 미미하다. 농민들 삶이 '천길 낭떠러지' 상황을 방치해선 안된다. 인건비 급등, 농산물 가격하락이 심상찮다. 작물별 적정재배, 저장 시설 대폭 확충, 유통구조 전면 쇄신, 대체작물 발굴 등 장기대책이 절실하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 전방위형과 뿌리순상 방지 미숙시작 단속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적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순상이 적고 전방위형성도 좋으며 미숙시작을 단속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갈 / 금굴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게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게 농업회사법인(주)장원농장
제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3083 / 제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2-7년생 하갈, 팔삭, 세미봉, 금굴,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감귤묘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2년생
● 미니향 2년생 ● 레몬3년생,
● 제라몬2년생 ● 미니몬1년생
● 하갈(아미나스)1~4년생
※ 극조생 & 조생
● 궁천조생1~3년생 ● 유라조생1~2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히노아까리 3년생
● 오하라베니와세(궁천번이) 1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한라봉 외
※ 탱자묘목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강정동465-1, 1013-1, 2327-1 하예동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